

조경/산림/원예-P4 대관령자연휴양림의 이용현황 및 활성화방안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조은미*, 김정대, 조태동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문화시설로서 국민에게는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주와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다. 이러한 산림휴양·문화시설은 온 국민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리도록 함은 물론 국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림자원과 산림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휴양림이 같을 수 없고, 이용객의 이용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슷한 시설과 기능으로 배치되어 있어 특화성 및 차별성이 없으며 특색 없는 대동소이한 자연휴양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실시한 이래 전국 최초로 개장한 대관령 자연휴양림도 다른 휴양림과 같이 휴양림 고유한 이미지 확립이 미비하고 재 방문율이 저조한 1회성 방문으로 그치고 있다.

이에 대관령 자연 휴양림의 이용 현황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특성화와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이벤트 요소를 도입하여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998년~ 2000년까지 최근 3년간의 대관령 휴양림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계절에 따라 이용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팀은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이용자 및 이용 특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2001년 10월 20일(토)과 28일(일) 2차에 걸쳐 퇴장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34부(팀별 1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용자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30대와 40대의 청장년 층이며 대학재학 및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사무·기술직과 전문·자유직에 종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계층이 주 이용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생활전반에 여유가 있고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회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연휴양림 한 곳만을 대상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여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이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로 보여진다.

여가를 보낼 목적지로서의 자연휴양림을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면 ‘단조로운 일상생활과 혼잡한 도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41.2%),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삼림욕 등 휴식을 취하기 위해’(38.2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가활동적 측면에서의 자연휴양림의 개념과 일치되는 동기들로 이용객들로 하여금 일상적 도시생활의 긴장과 복잡함을 벗어나 실내에서 편히 쉬고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휴양림의 대부분이 도시거주자로서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도시생활과 무미건조한 삶에서 무언가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도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과 접촉하면서 휴식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대인의 심신회복을 위한 자연회귀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관령 자연휴양림 이용객 선택동기를 찾아보면 ‘사람이 적고 조용해서 (32.3 %)', ‘산세가 깊고 계곡이 좋아서(26.5 %)', ‘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20.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즉 산림 그 자체의 유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 결과 특기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의 하나인 임산물 채취 및 구입을 위해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 휴양림의 조성취지의 하나인 산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른 휴양림과 차별되는 특성화 방안이 없다는 것과, 성수기와 비성수기 이용객의 편차, 이용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적인 요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의 전체적인 틀은 “교육과 휴양”을 중심으로 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대관령 자연휴양림 하면 “교육”적이다, 최적의 “휴양”공간으로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휴양림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식물의 생태, 산림환경, 자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숲 체험교실을 실시하여 숲속 식물 관찰과 나뭇잎탁본뜨기, 나무 열매 알아맞히기, 아름다운 나무이야기, 자연에서 배우는 조상들의 지혜 등으로 구성한다.

또 삼림욕을 즐기는 법, 숲 속 생물의 먹이사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 해설을 곁들여 숲에 대한 이해와 자연을 가까이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 숲 청결행사, 산나물캐기, 숲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휴양의 장”으로서 쾌적한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1. 강건우, 진황선, 자연휴양림의 이용객특성에 관한 연구
2. 곽경호, 송형섭, 휴양림 이용객의 특성 및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 연구

3. 김태진, 1994, 자연휴양림 이용행태 및 만족도 분석, 숲과 휴양
4. 박봉우, 이주희, 1999. 7,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의 생태교육장 활용방안
5. 박봉우, 1994, 자연휴양림 조성과 시설설비방안, 숲과 휴양
6. 송형섭, 1992, 휴양림의 풍치평가를 위한 계량화 모델의 개발
7. 류돈상, 1993,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8. 이인재, 1996, 충남도내 자연휴양림의 현황,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 이혁진, 윤병국, 관광자원으로서 자연휴양림의 연구동향과 개념정립
10. 최정수, 1998, 자연휴양림 이용객 특성과 이용행태 : 비슬산과 통고산 자연휴양림의 비교연구
11. 산림청, 1992, 자연휴양림
12. 산림휴양학회지, 1997. 8, 1999. 12, 2000. 8, 2000. 12
13. 산림청,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법시행 규칙 2001년 개정